

# 장흥군, 별난가족 별난캠핑 '하늘 찌르는 인기'

### 천문캠프 예약접수 10초 만에 전 회차 예약 마감

### 8회 54가족 233명 참석 자연 속 가족과 특별 경험

장흥군 정남진천문과학관에서 운영하는 '별난가족 별난캠핑' 천문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별난가족 별난캠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전남과학문화지원사업이다.

이번 천문캠프는 3년 만에 치러진 첫 대면 과학체험행사로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유치자연휴양림에서 무료로 진행됐다.

총 8회에 걸쳐 개최된 캠프에는 54가족 233명이 참여해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즐겼다.

천문캠프가 진행되는 1박2일동안 골판지망

원경, 태양광탐사로봇, 에어로켓 만들기 등 과학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다른 천문과학관에서는 쉽게 만져볼 수 없는 천체망원경을 직접 조립해보고 별을 찾아보는 체험은 참여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다.

특히, 이번 천문캠프는 예약접수 시작 10여 초 만에 전 회차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 관계자는 "더 많은 가족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제15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기간인 7월 30일부터 8월 7일 까지 9일간 정남진천문과학관 야외에 설치된 체험부스에서 에어로켓 만들기 및 태양관측 등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약"이라고 밝혔다. 정남진천문과학관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야간 관측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운영한다. 장흥=김도영기자

# 진도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진 '활발'

진도군이 저소득층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에너지 이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창호·바닥 배관 공사 등 난방시공 지원 ▲노후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복지사각지대 등 저소득 가구이다.

가구당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시공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진도군은 400여 가구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대상 가구 확인 여부를 거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해 폭염·혹한에 취약한 가구를 발굴, 주거 취약 가구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조상용기자



# 강진 다산청렴교육 상반기 교육 성황리 마무리

강진군에서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2022년 다산청렴교육 상반기 교육과정이 참여 공직자들의 큰 호응으로 마무리됐다.

다산청렴교육은 강진군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과 애민 사상으로 정렴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다산청렴교육은 올해 3월부터 시작해 4개 과정을 26회 운영했으며 935명의 전국 공직자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령별 특화과정 중 5060 사색의 길 청렴교육은 당초 모집인원이 40명이었으나 206명이 신청해 인기를 실감케 했다.

또 감성 농박체험 프로그램인 '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은 연수원 숙박이 아닌 강진군 푸소 농가에 머물며 농촌을 경험할 수 있

어 소문난 힐링 교육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교육과정은 다산청렴강의, 다산유적지, 현장 체험, 강진 대표 관광지 방문 등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 수입비 전액은 체험료, 관내 식당, 푸소 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으로 쓰이며 농부장터 농수특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1년부터 46,374명의 전국 공직자들이 다산청렴교육을 수료했으며, 강진의 아름다움 발견과 강진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과정 동안 방문한 장소 사진과 설명을 교육생 개인 SNS에 게시하는 '당신의 강진을 들려주세요'라는 개인미션을 진행하고 있어 강진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 "잔잔한 물결 · 송림 그늘 시원한 땅끝 송호해수욕장으로 오세요"

해남군 송호해수욕장 개장...안전·쾌적 환경 조성 위한 시설물 정비 완료

해남군 송호해수욕장이 8일 개장했다. 땅끝마을과 인접한 송호해수욕장은 해남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해변가의 수백년 된 노송림과 호수와 같은 잔잔한 물결이 아름다운 곳이다. 모래가 굵고 수심이 얕아 가족들이 함께하기 좋으며 해송이 제방을 따라 이어져 있어 야영을 하기에 적합하다.

군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피서객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완료했다.

특히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자 나무그늘, 야간조명 그늘 등 감성 포토존과 해변 파라솔 등을 조성했다. 23일부터는 수상레저 패들보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사전예약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며 완도해양경찰서, 해남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질서 대책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송호해변 여름축제가 열린다. 송호해변 콘서트를 비롯해 낭만버스킹, 수상레저 프로그램, 지역특산물 판매부스 운영 등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많은 이들이 송호해수욕장을 찾아 힐링과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했다"며 "많은 분들이 땅끝 송호해수욕장에서 무더위를 날려 보내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제62회 전남체전 발대식...'성공 개최 결의'

완도군이 지난 6일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조직 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대회 개최 준비에 돌입했다.

조직 위원회는 유관 기관 및 체육 관계자 등 13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은 조직 위원장(완도군수 신우철)이 최경철 완도군체육회 부회장에게 조직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회 추진 상황 보고, 조직위 및 집행위 운영 규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였으며, 최서만 위원과 임희덕 위원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신우철 조직 위원장은 "설군 이래 처음 개최되는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 등 잇달아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전남체전이 도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모아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내년 5월 경 완도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성공·참여 체전」, 「안전·경제 체전」, 「문화·관광 체전」, 「화합·희망 체전」을 목표로 열리며, 정식 종목 22, 시범 종목 1, 전시 종목 1 등 총 24개 종목에 22개 시군의 선수단이 참여한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